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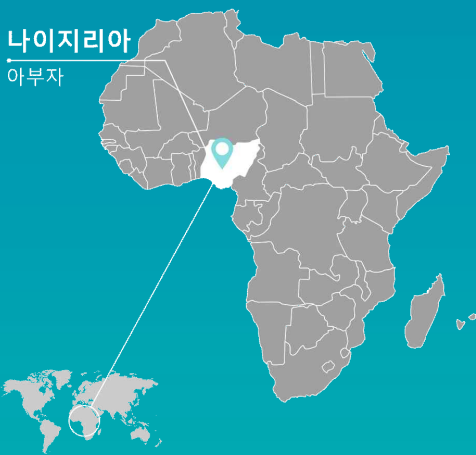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Federal Republic of Nigeria









2018년 11월 5일 | 조사역(G3) 정수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일반개황

면적 924천 km ² 	인구 193.9백만명 (2018기준)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개방정책 
GDP 4,227억 달러 	1인당GDP 2,180 달러 	통화단위 Naira (N) 	환율(\$기준) 305.60 

-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4.1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아프리카 최대인 1.9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니제르, 베냉, 카메룬과 접경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375억 배럴의 원유(세계 11위)와 5.2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10위)를 보유한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부국으로, 2003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2016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둔화를 겪은 후 경제가 1% 후반대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반면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치안 불안 등이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9년 대선에서 현 Muhammadu Buhari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이 크나 최근 건강이상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부족 및 종파 간 갈등,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의 테러 공격 등으로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0. 2. 22 수교 (북한과는 1976. 6. 25)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2), 해운협정('89), 투자보장협정('98),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정('06), 문화 및 교육 협력협정('12)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출	685,804	460,813	2,121,967	석유화학제품, 직물, 자동차
수입	1,123,491	524,860	500,438	액화가스, 석유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총투자기준) 44건, 301,880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6.3	2.7	-1.6	0.8	1.9
소비자물가상승률	8.1	9.0	15.7	16.5	12.4
재정수지/GDP	-2.1	-3.5	-3.9	-5.3	-5.2

자료: IMF, EU

비석유 부문의 정체와 무장조직의 석유시설 파괴에 따른 원유생산 차질로 저성장 지속 전망

-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석유 부문이 경제와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비석유 부문(농업, 통신업, 서비스업)의 성장에 힘입어 2014년까지 4~5%의 고성장을 유지해 왔음. 그러나 이후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이 -1.6%로 급속히 하락하였음.
- 2017년에는 유가 회복세에 따라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이 0.8%로 소폭 상승하였음. 2018년에도 유가 회복세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이 1.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비석유 부문의 정체와 반정부 무장조직의 지속적인 석유생산 시설 공격으로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나이지리아 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경제회복 및 성장 계획'(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 : ERGP)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4년 간(2017~20년) 연평균 4%대의 경제성장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원유 증산, 재정지출 확대, 산업다각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음. 그러나 정책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연평균 경제성장률 4%는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1>

부문별 GDP 성장률(%)

구분	2015	2016	2017	2018 ^f
농업 부문	3.7	4.1	3.4	3.5
석유 부문	-5.4	-14.4	4.8	8.1
비석유 부문	0.1	-5.0	0.6	1.0
서비스 부문	4.8	-0.8	-0.9	0.8

출처 : Worldbank('18.4월)

국내경제

<표 2>

부문별 GDP 기여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f
농업 부문	23.1	24.4	25.1	25.4
석유 부문	9.6	8.3	8.7	9.2
비석유 부문	14.1	13.6	13.6	13.4
서비스 부문*	53.2	53.6	52.7	52.0

출처 : Worldbank('18.4월)

* 2014년 나이지리아 통계청이 GDP 계산법을 수정(기준연도 변경, 수입/지출 포함 등)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영화(Nollywood), 무선통신 등 서비스 산업이 새로이 GDP에 포함되어, 서비스산업이 나이지리아 부문별 GDP 기여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심화 전망

- 석유수출 수입(收入)이 나이지리아 재정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2015~16년 저유가와 반정부 무장조직의 석유 생산시설 파괴활동으로 인한 산유량 감소로 3% 후반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재정지출로 2017년 재정적자가 5.3%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도 5%대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16년부터 예산을 확대 편성*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도 예산규모에서 25% 늘어난 9조 1200억 나이라(약 251억 달러)를 편성함. 그러나 2017년의 경우 배정된 예산의 25.7%를 소진하지 못하는 등 예산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2016년(6조 600억 나이라), 2017년(7조 3,000억 나이라), 2018년(9조 1,200억 나이라)

나이라화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두자릿수 유지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2012년까지 수년간 두 자릿수를 지속하다 식료품 국제가격의 안정 등으로 다소 하락하여 2013~15년 8~9%대 수준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16년 페그제 폐지에 따른 나이라화 가치 하락과 연료보조금 폐지 결정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5%에 근접하며 다시 두 자릿수로 상승했으며, 2017년 16.5%에 이어 2018년에는 1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나이지리아 정부의 달러 페그제 적용으로 나이라화 가치는 2015년 3월부터 달러당 197~199나이라 수준으로 고정되었으나, 2014년 후반 국제유가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원유 수출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외화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나이라화 가치 하락 압력을 받아왔음.
- 2016년 페그제 폐지 후 2017년에 나이라화의 미 달러당 환율은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해 305나이라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도 300대 초반의 높은 환율을 기록하며 나이라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 달러당 환율 추이(연중평균) :

192.7('15) → 253.0('16) → 305.3('17) → 305.6('18^f) → 316.2('19^f) → 355.8('20^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 상 수 지	899	-15,763	2,714	10,381	8,115
경상수지/GDP	0.2	-3.2	0.7	2.8	1.9
상 품 수 지	20,992	-6,447	-536	13,148	17,852
상 품 수 출	82,586	45,888	34,704	45,818	61,197
상 품 수 입	61,594	52,335	35,240	32,669	43,345
외 환 보 유 액	34,250	28,300	27,000	39,200	45,159
총 외 채	42,115	47,200	46,100	56,500	65,000
총외채잔액/GDP	7.4	9.6	11.4	15.0	15.4
D.S.R.	5.3	13.5	18.6	13.9	13.8

자료: IMF, EIU

산유량 불안정 및 상품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전망

- 원유수출이 상품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존적 무역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원유수출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4년 0.2%로 급격히 위축되었음. 이후 저유가 추세의 가속화로 경상수지는 2015년에는 GDP 대비 -3.2%의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6년에는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폭이 상품수출 감소폭을 앞지르며 경상수지가 GDP 대비 0.7%로 흑자를 회복하였음. 2017년에는 석유·가스 수출 증가와 더불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주요 품목 수입규제로 상품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2.8%로 증가하였음.
- 2018년에는 유가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장단체의 석유시설 공격 지속으로 인한 석유 수급 불안정과 경기 둔화세 완화에 따른 상품수입의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1.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외환보유액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2014년 이후 저유가 추세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정부가 수입물가 억제를 목적으로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재개하면서 외환보유액은 2014년 342억 달러에서 2015년 283억 달러로 감소함.
- 2016년에는 페그제 폐지에 따른 나이러화 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외환소비가 증가하여 외환보유액이 270억 달러로 더욱 감소함.
- 정부의 외환통제는 계속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석유 생산량 증가와 유가상승에 따라 2017년 외환보유액이 392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452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7년 7.4개월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6.8개월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양호한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 대외지급능력은 아직 양호한 수준

- 2000년대 초반 50%를 상회하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5년 승인된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300억 달러)과 GDP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12년 말 3.6%까지 낮아졌음.
- 그러나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 정부의 선심성 정책,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외채규모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동 비중은 20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7년 말에는 15%대까지 상승함.
 -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
6.6('13) → 7.4('14) → 9.6('15) → 11.4('16) → 15.0('17) → 15.4('18^f) → 13.9('19^f)
- 2017년에 이어 2018년 2월 2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추가 발행에 따라 외채규모가 증가해 2018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5%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외채의 대부분이 장기의 양허성차관임을 감안할 때 단기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 2017년 40억 달러(2월 10억 달러, 11월 30억 달러)의 유로본드를 10년 만기에서 15년(2월 발행분)과 30년(11월 발행분) 만기 장기채권으로 연장했으며, 2018년 2월 2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추가 발행함.
- D.S.R은 2015년 13.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13.9%, 2018년 13.8%로 전망되나, 이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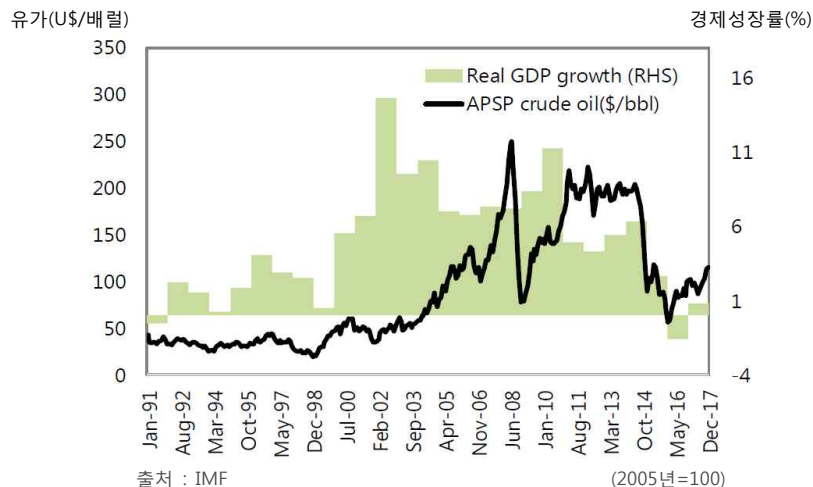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석유 및 농업 부문에 편중되어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정부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농업 부문이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구조가 여전히 1차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국제유가 변동에 경제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농업은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GDP의 25%(2017년), 총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대부분이 영세농으로 원시적인 영농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도로망, 관개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임.

<그림 1>

유가변화에 따른 나이지리아 경제성장률 추이



- 정부는 경제구조의 한계 극복을 위해 '경제회복 및 성장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총 60개의 세부 정책을 수립함.
- 60개의 세부 정책에는 산업다각화를 위한 6개 선도 분야* 중점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세 회복을 목표로 하는 비석유 부문 11개 전략물품 수출 주도, 디지털 분야 선도 및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 6개 선도 분야 : 농업,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건설·부동산, 석유·가스

인프라 부족, 부정부패, 고급인력 부족 등의 열악한 사업환경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나이지리아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특히 수송 인프라와 전력의 부족이 심각함.
- 넓은 국토(한반도의 4.1배), 많은 인구(2017년 1.9억 명으로 세계 7위), 빠른 인구증가율에 비해 도로, 철도 등 수송 인프라의 부족 및 노후로 급증하는 운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물의 내륙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의하면, 나이지리아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전력 공급 부문에서 172위, 자산 등기 부문에서 179위, 국가간 무역 부문에서 183위, 종합 145위 등 전반적으로 사업환경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나이지리아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국 중 148위, UN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8년 인간개발지수(HDI)에서 188개국 중 157위로, 부정부패와 고급인력 부족에 따른 열악한 기업환경이 경제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성장잠재력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에너지 자원 부국

- 나이지리아는 2017년 말 기준 375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세계 11위, 아프리카 대륙 2위) 및 5.2조m³의 천연가스 매장량(세계 10위, 아프리카 대륙 1위)을 보유한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 향후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유전 개발의 중심 국가임.
- 일일 원유 생산량은 199만 배럴(2017년)로 아프리카 대륙 1위임. 원유 매장량의 약 90%가 남부 Niger Delta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생산된 원유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에는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와 합작한 6개의 석유 메이저 회사(Shell, Mobile, Chevron, Agip, Elf, Texaco 등), 관련 분야 다국적 기업(Phillips, ESSo BP STATOIL, CONOCO DUPON 등)과 약 50여개의 토착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은 472억 m³(2017년)로 아프리카 대륙 3위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우리나라, 스페인 등임.
- 나이지리아는 중요한 對 유럽 LNG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가 나이지리아 전력 동력의 70%를 차지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가스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Niger Delta Avengers(NDA)의 주요 파이프라인 공격, 정부의 천연가스 개발사업 추진능력 부족 등으로 가스 매장량에 비해 생산량의 증가가 더딘 상황임.
- 한국 기업 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 가스 산업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2018년 6월 나이지리아 가스공사(NLNG)와 23,000m³에 달하는 LNG 가스선 프로젝트를 수주해 2020년 완공될 예정임.

아프리카 대륙 1위의 인구대국이자 경제대국

-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1.9억 명으로 아프리카 대륙 최대이며,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세계 7위임. 아울러 2012년부터 남아공을 제치고 GDP 기준 아프리카 대륙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대형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함.
- * 주요 아프리카 국가의 '17년 GDP(억 달러) : 나이지리아 3,760, 남아공 3,492, 이집트 2,370
- 유엔경제사회국(UN DESA)이 2015년 발표한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 개정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050년까지 3억 9,900만 명으로 늘어나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정책성과

'경제회복 및 성장계획'의 효과는 미진한 상태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7년 3월 '경제회복 및 성장계획'(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 2017-20)의 발표를 통해 2017~20년 4년간 연평균 4.6%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 상기 목표의 달성방안으로 비석유 부문 육성, 예산활용의 효율성 증대, 국가자산 민영화*, 전력 등 인프라 확충, 조속한 오일 증산 등을 제시하였음.
 - * 정부는 금년 4분기에 10개 공기업(전력, 항공, 보험 등)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10월 중 Nikon Insurance Limited와 Skyway Aviation Handling Co.이 매각될 예정임.
- 그러나 전력 부족과 부정부패 문제 등 경제발전에 고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비석유 부문 육성은 정부의 투자 확대에도 효과가 미진하여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표 3> 나이지리아 경제회복 및 성장 계획 주요 내용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 ERGP)

중점 과제	세부추진 방안
거시경제환경 안정화	- 금융, 무역, 재정정책 간의 조화 - 비석유 부문 육성 -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비용 절감 - 공공기관 및 국가자산 민영화
농업 및 식량안보 강화	- 농업개혁 정책 이행
교통 인프라 개선	-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우선 추진 - 민영 부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전력·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에너지 확보	- 조속한 석유 증산 - 전력 인프라 확충 - 각 지역의 원유 정제시설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산업화	- 기업환경 개선 - 제조업 개혁 정책 시행

자료: 나이지리아 예산기획부

통화/물가정책은 역효과 초래

- 2016년 페그제 폐지로 인한 나이라화의 가치 하락 및 연료보조금 폐지로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두 자릿수로 상승했으며, 달러 부족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외환통제로 외국계 및 현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
- 중앙은행이 나이라화 가치 보호를 위해 해외로의 달러송금을 3,000 달러로 제한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 항공사들의 영업수익 본국 송금이 제한됨. 이로 인해 British Airways, American Airlines, Iberia 항공 등이 나이지리아 노선을 폐지한 바 있음.

정치동향

2019년 대선에서 현 Buhari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 크나 정치적 변수 존재

- 2015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나이지리아 역사상 최초로 야당(All Progressive Congress: APC)의 Muhammadu Buhari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나 시위 없이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평화적 정권교체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정당/종파 간 갈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낮은 생활수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Boko Haram의 테러 활동 등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성 확보 및 개혁에 난항을 겪어왔음.
- 현 집권당인 APC와 야당인 PDP(People's Democratic Party) 모두 Buhari 대통령을 이을 차기 대통령 후보자의 부재로 2019년 대선에서 Buhari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이 큼. 다만, 최근 Buhari 대통령의 건강 이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적 변수가 상존함.
- Buhari 대통령은 취임 당시 부정부패 척결과 치안 개선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함. 그러나 야당인 PDP(People's Democratic Party)에서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없어 현 여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76세의 고령인 Buhari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인해 2017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기간을 부통령이 대행한 바 있어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큼.

사회동향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만연 및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

- 나이지리아는 2017년 GDP 기준 아프리카 1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2017년 1,995달러에 불과하며, UN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인구의 30.0%가 심각한 빈곤(severe poverty)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빈부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7년 나이지리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7점으로, 180개국 중 하위권인 148위를 기록하였음.

사회동향

종족-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 내부의 갈등 상황 지속

- 나이지리아는 250여개의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북부(이슬람)와 남부(기독교)로 양분되어 종족/종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유혈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Boko Haram에 의한 테러

- 북동부 지역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Boko Haram은 서구식 교육-문화를 죄악시하고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극단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하며 수많은 테러 공격을 주도하여 나이지리아 사회의 최대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2013년 1월 Boko Haram 내의 온건파 세력이 정부군과의 휴전을 선언함에 따라 상황의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이후 Boko Haram은 주로 학교와 민가를 습격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들을 살해 또는 납치하고 마을에 방화하는 등의 테러를 계속하고 있음.
- 1만 명 이상이 살해된 2014년을 포함하여 2009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최소 20,000명 이상이 Boko Haram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파악됨. Boko Haram은 납치한 민간인들 중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강제로 자살폭탄 테러에 투입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음.
- Boko Haram은 나이지리아 정부군의 토벌 작전이 진행되자 국경을 넘어 카메룬, 차드, 니제르 등 인접국들에서까지 자살폭탄 공격 등 테러를 자행하여 동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 2015년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국가(IS)에 충성 맹세를 선언하는 등 여타 극단주의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Boko Haram 내 지도자 간 세력다툼으로 조직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 지도자인 Abubakar Shekau가 자신의 입지가 공고함을 알리며 지속적인 테러를 자행하고 있음.

무슬림 유목민 Fulani 부족 무장세력의 기독교 농경 부족들에 대한 학살 자행으로 사회불안 심화

- 북부의 무슬림 유목민인 Fulani 부족과 중부/남부의 기독교계 농경 부족들은 과거 목초지와 농업용수를 평화롭게 공유해 왔으나, 최근 수년 간 목초지와 농업용수의 사용을 놓고 갈등이 빈발하면서 Fulani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수천 명이 피살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음.
-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의 2017년판 Global Terrorism Index Report에 의하면, 2012~16년의 5년 간 Fulani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 수는 2,500명 이상으로, 2017년 기준 나이지리아 내에서 가장 많은 살상을 저지른 집단으로 집계됨.

사회동향

- 동 사태는 무슬림 유목민 부족이 기독교도 농경민 부족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상황으로, 나이지리아의 뿌리 깊은 부족 간 및 종교 간 갈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Buhari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Fulani 무장집단의 기독교도 공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나이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무장단체 Niger Delta Avengers(NDA)의 석유시설 테러

- 나이지리아 원유 매장량의 90%가 남부 Niger Delta 지역에 분포해 있으나, 이곳에 근거지를 둔 무장단체 Niger Delta Avengers(NDA)가 2016년 2월부터 송유관 등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함. 이에 따라 일일 원유생산량이 2015년 평균 220만 배럴에서 2016년 190만 배럴로 급감했으며, 2017년에는 198만 배럴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5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나이지리아 남부 Niger Delta 지역의 유전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과 환경파괴 등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 주민들이 NDA를 위시한 무장단체를 결성하여, 석유이권 배분을 요구하며 석유 생산시설을 공격해 오고 있음.

<그림 2>

나이지리아의 원유매장 분포



출처 : Aljazeera

- NDA는 2018년 1월 더욱 적극적인 원유 및 가스 생산시설의 공격을 선언함. 이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2019년 초까지 지속적인 시설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나이지리아 정부의 원유 생산량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목표 달성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관계

미국 등 서방과 더불어 아시아 국가와도 관계 강화

- 2017년 3월 미국과 나이지리아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해 미국-나이지리아 위원회(US-Nigeria Council : USNC)가 출범하였으며, 2018년 4월 Buahri 대통령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짐.
- USNC는 나이지리아의 경제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 향상, 양국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 DC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사무소가 설치됨.
- 중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2002년 20억 달러에서 2016년 157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16년 Buhari 대통령의 방중 이후 중국 기업들의 나이지리아 인프라 건설 투자가 추진됨. 또한 최근 인도가 나이지리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의 제1위* 수입국으로 대두되며 중국 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음.
- * 주요 수입국(2018년) : 중국(25.2%), 네덜란드(8.6%), 벨기에(8.1%), 인도(6.9%), 미국(6.7%)
주요 수출국(2018년) : 인도(16.2%), 네덜란드(10.3%), 스페인(9.6%), 남아공(8.1%), 미국(6.9%)
- 중국은 나이지리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면서 기 진출한 Chevron, ExxonMobil, Eni, Total 등 서방의 석유메이저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나이지리아와 2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무역에서 달러 사용 필요성을 줄여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 역할 담당

-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내의 리더이자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지역 내 분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 다만, 외환지출 축소를 위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수입 억제정책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관계 및 ECOWAS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테러 조직(Boko Haram, 기니만 해적) 등의 퇴치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 2015년 2월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차드, 카메룬, 니제르 등 주변국은 Boko Haram, 기니만 해적 등의 퇴치를 위한 10,000명 규모의 다국적군(Multinational Joint Task Force: MNJTF)을 창설하였음.
- 동 다국적군은 차드의 수도 은자메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7년 나이지리아 육군의 Lucky Irabor 소장이 제4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Boko Haram, 기니만 해적 등의 격퇴작전을 강화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외채의 대규모 채무재조정 경험 보유

- 2005년 파리 클럽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300억 달러의 나이지리아 외채 중 60%인 180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6년 300억 달러의 외채를 120억 달러에 매입하는 방식(buyback)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한 바 있음.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2018년 6월 말 기준 나이지리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은 15.8억 달러(단기 1.9억 달러, 중장기 13.8억 달러) 중 연체금액은 35.8백만 달러(여신잔액의 2.3%)로 집계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7.10)	6등급(2016.10)
Moody's	B2 (2017.11)	B1 (2016.12)
Fitch	B+ (2018.05)	B+ (2017.08)

OECD는 6등급 유지, 국제신용평가3사는 나이지리아에 투자부적격 등급 부여

- OECD는 2016년 CRE 회의에서 저유가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악화 등을 반영해 나이지리아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16년 유가하락을 반영해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2016년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17년 유가 회복세에 따라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이 0.8%로 소폭 상승하였음. 2018년에는 유가 회복세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상승하겠으나, 비석유 부문의 정체와 무장조직의 석유시설 파괴에 따른 원유생산 차질로 1% 후반대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대선을 앞두고 현 Buhari 대통령의 건강 이상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부족 및 종파 간 갈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북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Boko Haram과 Fulani족 무장세력 및 남부의 Niger Delta Avengers의 테러 활동 등으로 정치/사회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유가회복과 석유 생산량 증가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17년부터 증가 추세이나, 재정적자 총당을 위한 외채 증가와 페그제 폐지 이후 지속적인 나이라화 가치 하락으로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다만, 외채의 대부분이 장기의 양허성차관임을 감안할 때 단기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가나
	(OECD 6등급) (수은 D1)	(OECD 4등급) (수은 C1)	(OECD 6등급) (수은 D1)	(OECD 6등급) (수은 D2)
GDP 규모(억 달러)	3,764	3,493	1,236	465
1인당 GDP(달러)	1,995	6,180	4,385	1,645
경제성장률(%)	0.8	1.3	1.48	5.9
소비자물가상승률(%)	16.5	5.3	30.9	11.8
재정수지/GDP(%)	-5.3	-4.6	-6.8	-4.5
경상수지/GDP(%)	2.8	-2.5	-5.0	-4.6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7.4	4.4	6.4	4.2
외채상환액/총수출(%)	13.9	8.42	16.19	20.0
총외채잔액/GDP(%)	15.0	50.7	36.7	44.8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37.0	97.6	9.8	55.5

※ 2017년 기준